「한국지방행정학보」 제17권 제1호(2020. 4): 135-156
DOI https://doi.org/10.32427/klar.2020.17.1.135

다문화가정 인적자원을 활용한 ODA 효과성 제고방안*

- 시스템다이내믹스 적용 -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Application of System Dynamics Methodology

장 지 현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부교수)

Abstract

Ji-Hyun Jang

This article explores how multi-cultural household members in Korea can maximize their potential by using their abilities especially in relation to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In recent time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household members is increasing over time in Korea, leading policy-makers to design more applicable policies for them. Considering that they have some characteristics which native Koreans do not have, it is necessary for us to develop more realistic policies reflecting the merits they hav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mploys system dynamics approach to identify reinforcing and balancing loops underlying the causal map which contains the variables affecting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ODA and multi-cultural households.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four reinforcing loops and three balancing loops have been discovered so that policy makers can take them into account in making policies ragarding ODA and multi-cultural households.

Keywords: Official Development Assitance, multi-cultural household, system dynamics

I. 서 론

우리나라가 2010년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우는 OECD의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 이후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는 크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8022593)

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올해의 ODA 예산규모는 3조 4천억원 수준으로서 우리나라의 여성부 예산 규모인 1조 800억보다 약 3배 이상에 이른다. 이 규모는 OECD DAC 회원국가 29개 국가중 15위에 해당되는 규모로서 절대규모로서는 큰 액수라고 하겠다. 이러한 절대 수치의 ODA 예산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ODA 사업 수행에 관련된 국제적 평가결과는 너무나 낮은 편이다. 매 4년 마다 ODA 공여국들의 ODA 사업 효과성을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는 국제기관인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의 2018년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비교대상국 27개 국가중에서 24위에 랭크되어 있다. 2010년 보고서에서는 23개국가 중 22위, 2014년에는 23개국가 중 23위를 기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ODA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여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서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을 활용한 ODA 사업 접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ODA 사업 수혜국들이 저개발국가이며, 동시에 한국에서 증가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이 저개발 국가 출신의 배우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ODA와 연결지어서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연구자들이 (조재환 외, 1016; 김진관, 2015)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은 국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해외진출 기업 지원이나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인력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다문화가정 인력의 활용 필요성은 제기하고 있으나 이들 인력들을 ODA와 연결시키는 경우 세부적으로 관련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이나 시스템에 존재하는 피드백 루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다문화가정 인력을 ODA와 연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들 시스템에 존재하는 피드백 루프를 인식하지 못하면 정책결정자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은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 (김동환, 201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하에서 한국의 다문화 가정 인력들을 ODA 사업에 효과적으로 연계시켜서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동시에 한국이 저개발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ODA 사업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다문화가정 인력을 ODA와 연계시키는 경우 고려해야 할 피드백 구조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문화가정 인력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ODA 정책과 다문화가정 인력활용의 관계를 피드백 구조로 분석하고 정책방향성을 제고시키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 가정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다문화 가정에 관련된 연구들이 제시하는 중요한 쟁점들을 검토해 본다. 이어서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을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과 ODA 사업에 내재하는 피드백 구조를 분석하고 피드백 루프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다문화가정 현황과 이론적 논의

1. 다문화가정의 현황

다문화가정이란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결혼이민자가 존재하는 일반가구(다문화 대상자의 자녀가 있는 가구도 포함)를 의미한다(행정안전부, 2018). 다문화가구원은 다문화가구의 구성원으로써,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대상자나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8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는 31.9만 가구이며 가구원 수는 96.4만명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가구 (2,1017만 가구)의 약 1.6%에 이른다. 한국인 배우자는 30.1만명에 이르고 있다. 즉 100만명 정도가 다문화 가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수가 32.1만명, 자녀 22.1만명(18세 이하), 한국인배우자 30.1만명, 기타 동거인 12.1만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 가정들의 혼인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20,835건이 있어서 전체 혼인 26만 4천건의 약 7.9%에 해당된다 한편 이혼도 많은 편인데 2017년 기준으로 7,130건의 이혼이 발생하여 전체 이혼 건수 10만 6천건의 약 6.7%에 해당되고 있다 (최분희.이창원, 2017). 다문화 출생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18,440명에 해당되어 전체 출생 35만 8천명의 5.2%에 달한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8년 기준으로 122,212명으로서 전체 학생 수 563만 4천명의 2.2%에 해당되고 있다. 결혼 이민자 고용율은 2018년 기준으로 55.3%에 그치고 있어서 전체 고용률 65%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행정안전부)

단위: 명

연도 ('07~'15)	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연도 ('16~)	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7	330,188	65,507	264,681	160,653	30,745	129,908	169,535	34,762		134,773		
2016	318,948	61,544	257,404	159,501	28,728	130,773	159,447	32,816		126,631		
2015	294,663	56,652	238,011	144,912	25,263	119,649	93,249	10,308	82,941	56,502	21,081	35,421
2014	295,842	48,787	247,055	149,764	21,953	127,811	90,439	4,261	86,178	55,639	22,573	33,066
2013	281,295	45,348	235,947	147,591	20,887	126,704	83,929	4,264	79,665	49,775	20,197	29,578
2012	267,727	42,459	225,268	144,214	19,630	124,584	76,473	4,268	72,205	47,040	18,561	28,479
2011	252,764	39,825	212,939	141,654	18,561	123,093	69,804	4,317	65,487	41,306	16,947	24,359
2010	221,548	34,144	187,404	125,087	15,876	109,211	56,584	3,796	52,788	39,877	14,472	25,405
2009	199,398	30,988	168,410	125,673	15,190	110,483	41,417	2,047	39,370	32,308	13,751	18,557
2008	168,224	26,339	141,885	102,713	13,711	89,002	41,672	2,991	38,681	23,839	9,637	14,202
2007	142,015	21,905	120,110	87,964	12,497	75,467	38,991	2,624	36,367	15,060	6,784	8,276

자료: 여성가족부 통계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보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17년에는 2016년 보다 약간 줄어든 추세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여성들의 결혼증가 추세 감소 등을 고려해 보면, 결혼이민자 및 한국 국적 취득자 추이는 30만 이상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국적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단위: 명

국적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42,015	168,224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295,842	294,663	318,948	330,188
중국 (한국계)	59,902	70,901	77,853	87,565	88,922	97,796	100,524	103,194	103,171	110,619	114,101
중국	33,577	39,434	53,864	60,183	69,671	65,832	67,944	71,661	59,813	64,524	67,257
베트남	16,305	21,306	31,080	34,913	42,159	47,754	52,323	56,332	62,072	66,554	69,774
필리핀	7,146	8,033	10,150	10,868	12,428	13,829	15,256	16,473	17,576	18,247	18,695
일본	6,742	6,653	5,742	5,594	11,070	11,705	12,338	12,875	11,391	11,278	12,117
캄보디아	-	-	-	3,354	4,422	5,316	5,684	6,184	6,902	7,221	7,621
몽골	1,605	2,121	2,591	2,665	2,959	3,068	3,186	3,257	3,308	3,394	3,523
태국	1,566	1,896	2,291	2,350	2,914	2,918	2,975	3,088	3,069	3,328	3,803
미국	1,436	1,750	1,911	1,890	2,598	2,747	3,081	3,350	5,368	7,377	7,711
러시아	997	1,854	1,162	1,279	1,827	1,943	2,025	1,976	1,937	1,895	2,253
대만	5,696	4,336	1,211	1,856	1,836	2,390	2,661	2,953	4,298	4,552	5,308
기타	7,043	9,940	11,543	9,031	11,958	12,429	13,298	14,499	15,758	19,959	18,025

자료: 여성가족부 통계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별로는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되어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제일 큰 나라이다. 캄보디아, 몽골 등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중점 협력 대상국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대상국은 2020년 현재 24개국으로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며, 이 들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 많은 나라들도 있고, 적은 나라들도 있다.

〈표 3〉 ODA 중점협력국

구분	국가	비고
	가나 (26명) (334명), 네팔 (1,691 명), 라오스 (102명), 르완다 (141명), 모잠비크 (16명), 몽골 (7,381), 미얀마 (830명), 방글라데시 (1,203명), 베트남 (37,426명), 볼리비아 (23명), 세네갈 (29명), 스리랑카 (302명), 아제르바이잔 (68명), 에티오피아 (252명), 우간다 (120명), 우즈베키스탄(7,492 명), 인도네시아 (1,615명), 캄보디아 (351명), 콜롬비아 (126명), 탄자니아 (110명), 파라과이 (31명), 파키스탄 (1,542명), 페루 (92명), 필리핀 (622명) (24개국)	중점협력국은 1기에는 26개국, 2기 (2016-2020)년에는 24개국으로 선정되어 있음.

자료: 교육부 외국인유학생 통계 (괄호안이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

그러나,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도 현재 우리나라에 학위과정 학생들만 2019년 말 기준으로 71,067명 공부하고 있고 어학연수생을 포함하면 17만명에 이르고 있다. 다문화 가정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외국인유학생들도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분석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언급하도록 한다.

2. 이론적 논의

1) 다문화가정 인적자원의 ODA 사업참여 필요성

다문화 가정과 관련하여 학계에서도 최근 많은 연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몇 개의 분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정책적 지원방안과 관련된 것이다. 이 연구들은 주로 다문화 가정들을 법적으로 더욱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들 및 제도적 지원에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 부류에는 김영숙. 우정환 (2012), 오성배. 박희훈 (2018), 이성은 (2019), Edmunds, and Brown (2010), Tatar (2005, Jippes et al. (2006) Hommes (2012; 임춘식외, 2017)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에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성적문제, 비행문제 등 아동들이 가지는 문제들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 두 번째 연구 부류에는 윤경희. 장일식 (2015), 윤경희, 양문승 (2015), 오성배, 박희훈 (2018), 김양현 (2012), 윤경선 (2017), 박진희 (2012), McLean et al. (2006), Tompson and Tompson (1996), 김승완 (2017) 등이 속한다. 세 번째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여기에는 전자배 (2018), 김정원외 (2009), 최충옥, 이륜 (2009), 원숙경 (2017), Frambach et al. (2012), Gurin et al. (2002), Sümer et al. (2006) 등이 포함된다. 네 번째는 다문화 가정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나아가서는 국가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는 임혜정 (2018), 김제선 (2011),박미석, 김경아 (2016), 윤석상 (2015), 박미석, 전지원 (2017), Volet and Ang (2012). 등의 연구가 포함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당 관련 분야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연구들이다. 이 중에서 특히 일부 연구들은 이들의 특성을 살려서 공적개발원조 부분에 참여시키자는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박미석. 전지원 (2017)은 한국 다문화정책의 적극적인 구상 및 실천 방안으로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다문화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들의 잠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출신이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194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은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나, 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과 공적개발원조 관련 교육에 대한 참여경험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 대한 관심은 낮았으나, 국제사회에

서의 상호협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다문화청소년이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높게 인식하였다. 이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적 특성을 강점으로 부각하여 활용할 수 있는 미래 공적개발원조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임혜정 (2018)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협동조합을 활용해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서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 자조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B협동조합의 여성 6명을 대상으로 수업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를 함으로써 이들이 다문화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 자조공동체가 중심이 된 사회적경제는 여성들로 하여금 다문화강사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동시에 실질적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게 함으로써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주체적 업무분담과 수평적 관계 형성, 민주적 의사소통 등은 이주민이 주체가 될 때 대안적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주의의 내용이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연구들에서 보듯이 다문화 가정들을 잘 활용한다면 이들의 개별적 잠재력을 확대시켜서 개인적 성취감 및 자아실현감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및 국가발전에도 기여하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ODA)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하며, 어떠한 순기능적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 또 어떠한 전략적 수단들을 동원할 때 더욱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전략적인 연구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인력을 활용하여 ODA와 직접 연계시키는데 관련되어 있는 정책결정가나 정책집행가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여국 으로서의 한국이 ODA 수혜국에 ODA 사업을 제공하여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과 변수 들 간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고려를 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김학실.최영출, 2019a; 김학실.최영출, 2019b). 다문화가정 인력을 ODA에 활용하고자 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에서도 인용할 수 있는 문헌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인력의 ODA 활용과정을 시스템 관점에서 이해하여 투입-활동-산출-성과의 단계로 단순화 하고 내재하고 있는 피드백 구조를 도출해 보는 데 초점을 두기로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이 분야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 접근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거의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득이 매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 및 변수간의 관계는 기존 타 분야 선행연구들 (김진관, 2015; 조재한 외, 2016; 임혜정, 2018; 박미석.·김경아, 2016; 장지현, 2017)에서 응용하여 활용한다. 아울러, 이에 바탕을 둔 인과지도 작성 및 피드백 구조 도출을 시도해 보기

로 한다. 즉, 기존의 타 분야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인과관계 구조 도출 방법들을 원용하여 다문화 가정의 인력을 ODA 사업에 활용할 때의 분석과정에 필요한 피드 백 구조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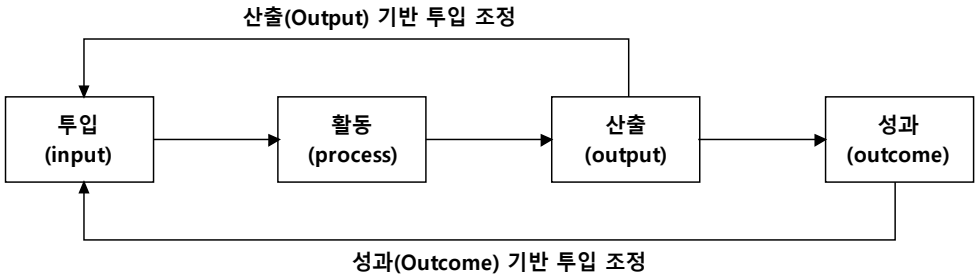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이론은 시스템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해당 시스템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변화원인과 결과를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연구하는 학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Sterman, 2000; 최영출, 2017). 다문화가정 인적자원 양성 및 ODA 사업과의 연계를 분석한다고 할 경우, 단기 및 중장기 ODA 성과의 변화추이를 사회경제 효과 뿐만 아니라, ODA 사업의 집행효율과 관련시킴으로써 유발되는 성과를 시간에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석과정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기본 요소는 ODA 사업으로 수혜국이 얻는 ODA 성과창출 체계와 같이 하나의 거시 시스템 (System)이다. 이 거시 시스템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즉, 하위시스템 및 개체 (Object)라고 하는 시스템의 하위 구성요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체들은 다른 개체와 상호연관 관계를 맺고,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체들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관찰한다 (Sterman,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인적자원 투입 (input) 및 활용으로 ODA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발생하는 ODA 성과 변수에 대하여 ODA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확보 및 교육훈련지원 등의 투입변수의 변화에 대한 성과변수의 변화를 관찰하고, ODA 수혜국을 위한 ODA 사업성과가 수혜국 사회경제적 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피드백 인과지도를 통하여 분석한다.

Ⅲ. 다문화가정의 ODA 활용: 인과지도와 루프 탐색

1. 기본적 분석구조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문화 가정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ODA) 분야에 적용한다고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전략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화루프와 균형루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어느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초점을 두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인과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 분석구조를 체제론적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기본적 분석구조

다문화가정 인적자원 투입 (input) 및 활용은 ODA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현지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과정 (process)을 통하여 ODA 사업성과 (outcome)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수혜국에 대한 ODA 지원사업의 성과와 지원과정에서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정책자원 투입으로 정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정책 실행 결과가 산출물로 나타나게 된다 (Sterman, 2000; 최영출, 2017). 이러한 정책실행으로 발생하는 산출물들은 서로 융합되거나,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정책성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가정한다.

2. 인과지도 작성 및 루프탐색

1) 인과지도 작성

인과지도 작성원리와 다문화가정의 ODA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인과지도는 다음과 같다.

(1) 인과지도 작성 원리

다문화가정 인적자원을 활용한 ODA 전문인력 확보로 ODA 지원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선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피드백 루프는 다음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초적인 변수간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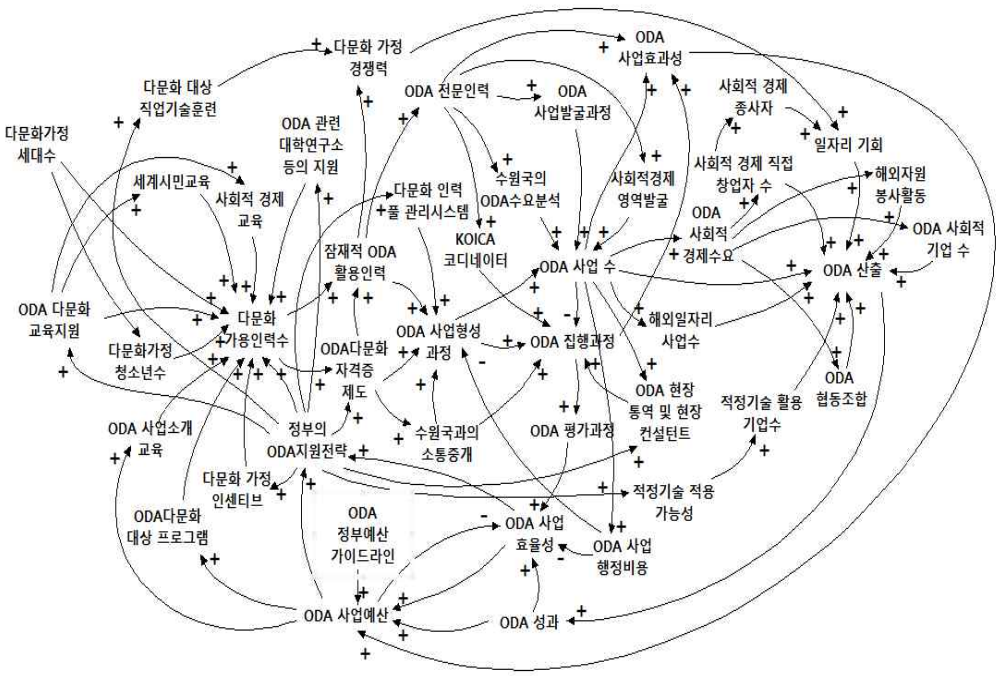
〈표 4〉 변수 부호 관계

두 변수간의 양(+)의 관계	두 변수간의 음(−)의 관계
A $\xrightarrow{+}$ B	A $\xrightarrow{-}$ B
양(+, Positive)의 관계는 A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하고, A가 감소하면 B도 감소하는 정(正)의 관계를 나타낸다.	음(−, Negative)의 관계는 A가 증가하면 B는 감소하고, A가 감소하는 경우 B는 증가하는 역(易)관계를 나타낸다.

(2) 다문화 가정 인적자원을 활용한 ODA 사업효과성 증가 인과지도

ODA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혜국과 연관성이 있는 다문화가정 인력에 대한 교육과 자격증 획득으로 ODA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은 ODA 집행과정과 성과창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김진관, 2015).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ODA 사업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관련되는 영향변수들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인과지도 바탕하에서 강화루프와 균형루프를 도출하여 보았다. 이러한 강화루프와 균형루프는 정책결정가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자들은 시스템에 존재하는 이러한 피드백 루프를 인식하지 못하며 그 결과 이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은 효과를 자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김동환외, 2019). 인과지도를 작성하여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들을 루프 탐색 과정을 통해서 도출해 낸다면, 정책의 효과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때 그 속에 존재하는 강화루프와 균형루프라는 피드백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김동환



〈그림 2〉 다문화 인력활용을 통한 ODA사업 활성화 피드백 인과지도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다문화 인력을 대상으로 다양한 ODA 전문가양성 교육을 통하여 양성된 ODA 전문가는 해당 국가에 다양한 ODA 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를 통하여 ODA 성과 산출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가 생성되고, 차년도 ODA 사업예산이 증가되는 선순환 과정이 나타난다. 다문화 인력양성 활용을 통하여 ODA 사업성과가 창출되는 선순환 피드백 과정(Virtuous Feedback Loop)은 다음의 주요 피드백 루프로 구성된다.

- R1: 다문화 가용 인력 수 강화루프
- R2: 잠재적 ODA 활용인력을 통한 ODA 전문인력 양성 강화루프
- R3: ODA 사업효과성 강화루프
- R4: ODA 사회적 경제수요 강화루프

- B1: ODA 사업수에 따른 ODA 사업 효율성 균형루프
- B2: ODA 사업행정비용 균형루프
- B3: ODA 사업수에 따른 ODA 집행과정 효율성 균형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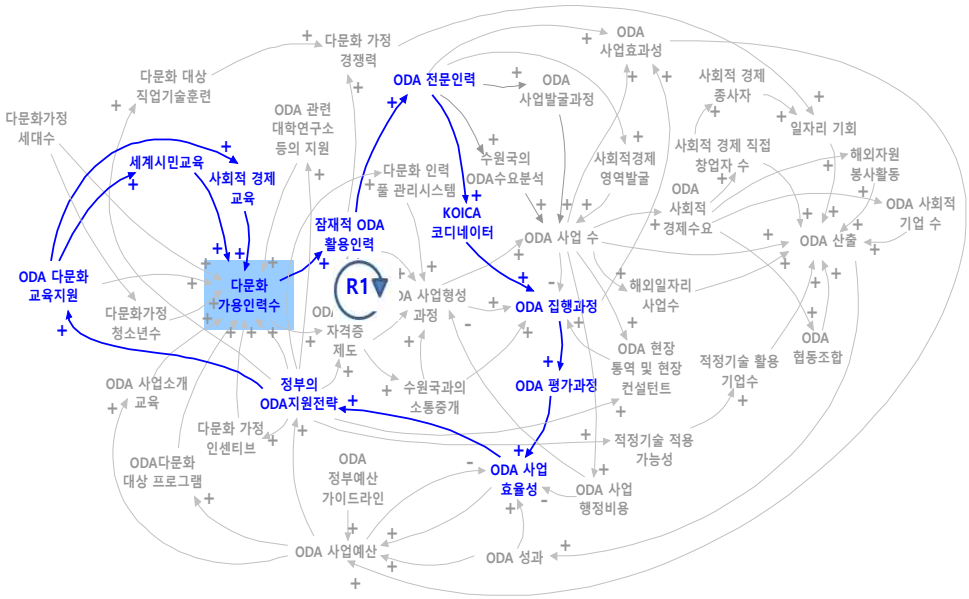
2) 강화루프와 균형루프 탐색

먼저 강화루프 (Reinforcing Loop)를 탐색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R1: 다문화 가용 인력 수 루프(Loop)

수혜국을 위한 성공적인 ODA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혜국 현지 사정을 잘 이해하는 ODA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수혜국과 관련이 있는 다문화가정 출신의 인력을 확보하여 수혜국 ODA 사업에 활용한다면, 현지 전문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문화 가용 인력 수 루프는 다문화 인력의 다양한 ODA 인력양성 교육을 통하여 세계시민교육과 사회적 경제교육을 이수한 ODA 전문인력으로 양성되어, ODA 사업 진행에 참여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ODA 사업 효율성을 높이게 되는 선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루프이다.



〈그림 3〉 다문화 가용 인력 수 루프(Lo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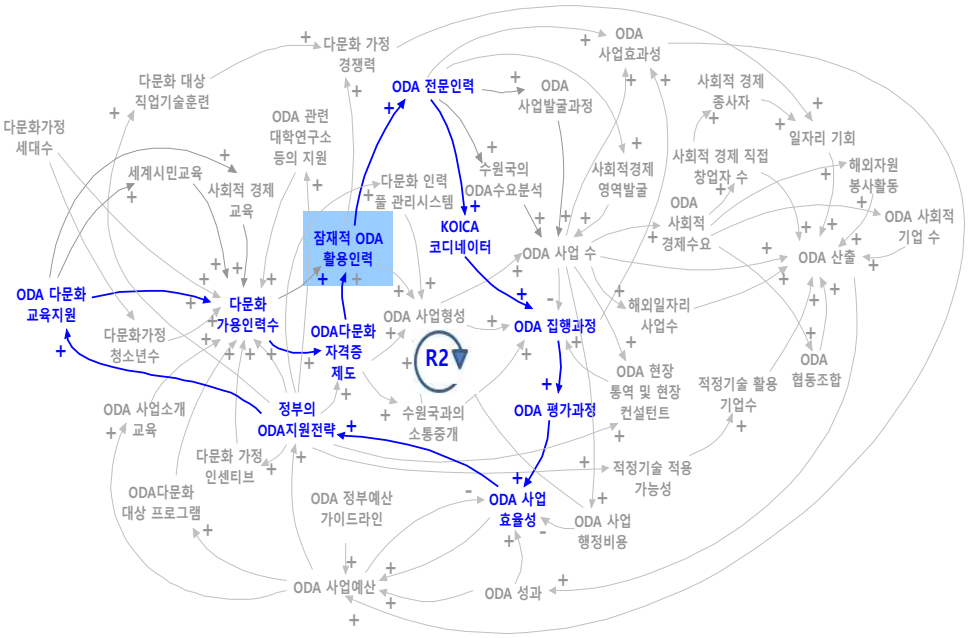
다문화 가용 인력 수 강화루프의 구성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ODA 다문화 교육지원 ⇨ 세계시민교육 및 사회적 경제교육 ⇨ 다문화 가용인력수 ⇨ 잠재적 ODA 활용인력 ⇨ ODA 전문인력 ⇨ KOICA 코디네이터 ⇨ ODA 집행과정 ⇨ ODA 평가과정 ⇨ ODA 사업효율성 ⇨ 정부의 ODA 지원전략 ⇨ ODA 다문화 교육지원 강화

(2) R2: 잠재적 ODA 활용인력을 통한 ODA 전문인력 양성 루프(Loop)

ODA 다문화 교육을 통하여 확보한 다문화 가용인력은 ODA 다문화 자격증 제도를 통하여 수혜국 ODA지원을 위한 ODA 전문인력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수혜국 사회경제적 환경을 잘 이해하는 잠재적 ODA 활용인력은 ODA집행과정 및 평가과정에 있어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잠재적 ODA 활용인력을 통한 ODA 전문인력 양성 루프는 다문화 인력이 ODA 다문화 자격증 제도를 통하여 양성되어 잠재적 ODA 활용인력이 되어 ODA 사업에 투입되는 순선환 과정을 나타내는 루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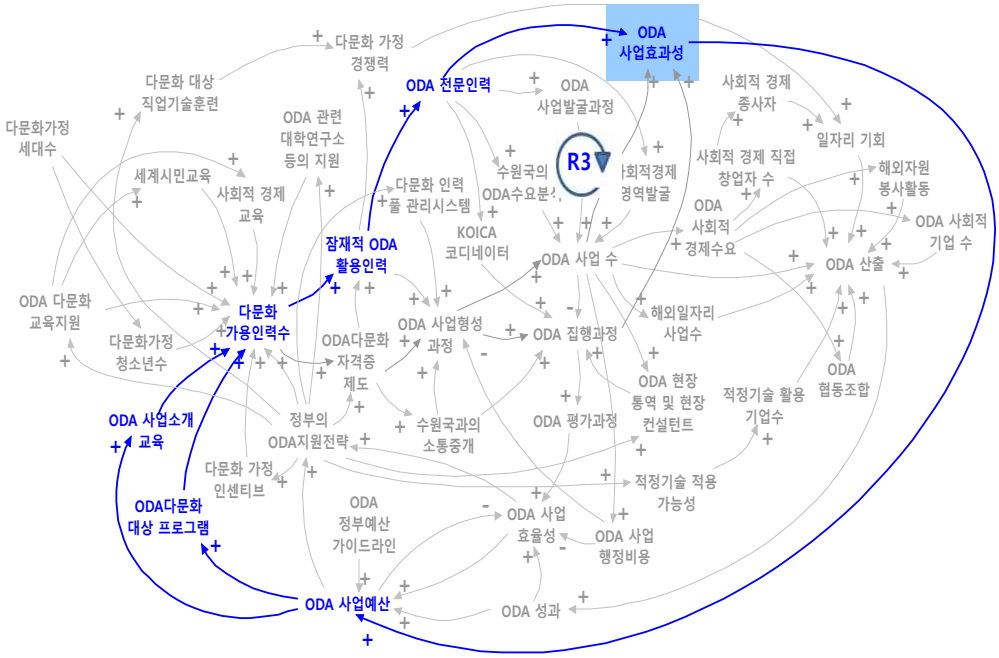
〈그림 4〉 잠재적 ODA 활용인력을 통한 ODA 전문인력 양성 루프(Loop)

잠재적 ODA 활용인력을 통한 ODA 전문인력 양성 강화루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ODA 다문화 교육지원 ⇨ 다문화 가용인력수 ⇨ 잠재적 ODA 활용인력 ⇨ ODA 전문인력 ⇨ KOICA 코디네이터 ⇨ ODA 집행과정 ⇨ ODA 평가과정 ⇨ ODA 사업 효율성 ⇨ 정부의 ODA 지원전략 ⇨ ODA 다문화 교육지원 강화

3) R3: ODA 사업효과성 루프 (Loop)

ODA 사업효과성 피드백 루프는 ODA 사업예산을 기반으로 다문화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ODA 사업에 투입할 다문화 가용 인력을 확보하여, ODA 전문인력으로서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루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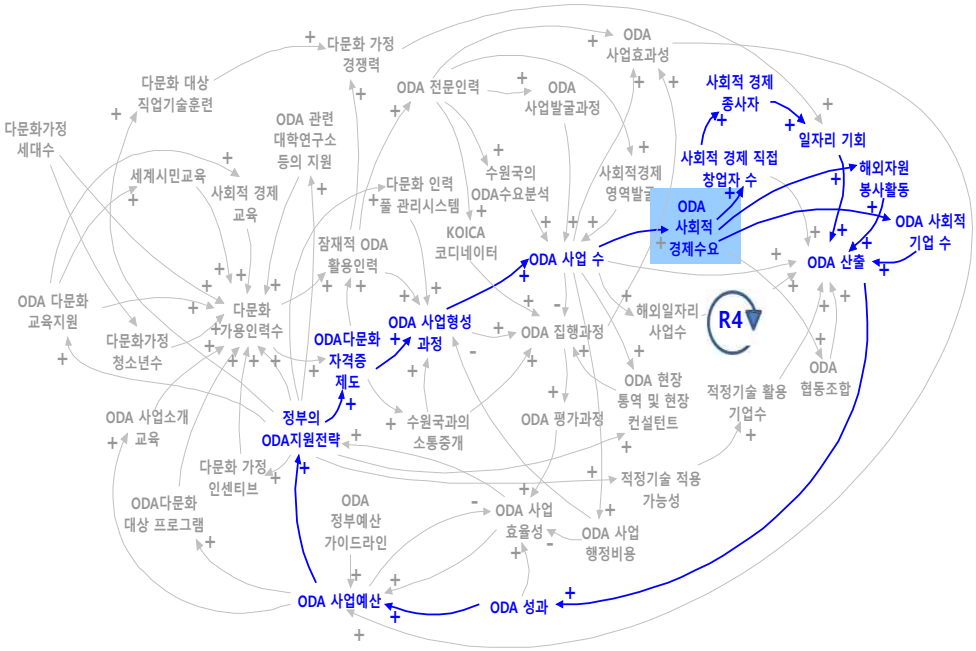
〈그림 5〉 ODA 사업효과성 루프 (Loop)

ODA 사업효과성에 대한 강화루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ODA 사업예산 ⇨ ODA 다문화 대상 프로그램 및 ODA 사업 소개교육 ⇨ 다문화 가용 인력수 ⇨ 잠재적 ODA 활용인력 ⇨ ODA 전문인력 ⇨ ODA 사업 효과성 ⇨ ODA사업 예산 증가

4) R4: ODA 사회적 경제수요 루프 (Loop)

ODA 사회적 경제수요 루프는 ODA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ODA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활용한 ODA 사업으로 ODA 사회적 경제 종사자 및 관련 일자리를 늘리고, ODA 사회적 기업 수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피드백 루프이다 (노영숙. 장지현, 2018).



〈그림 6〉 ODA 사회적 경제수요 루프 (Lo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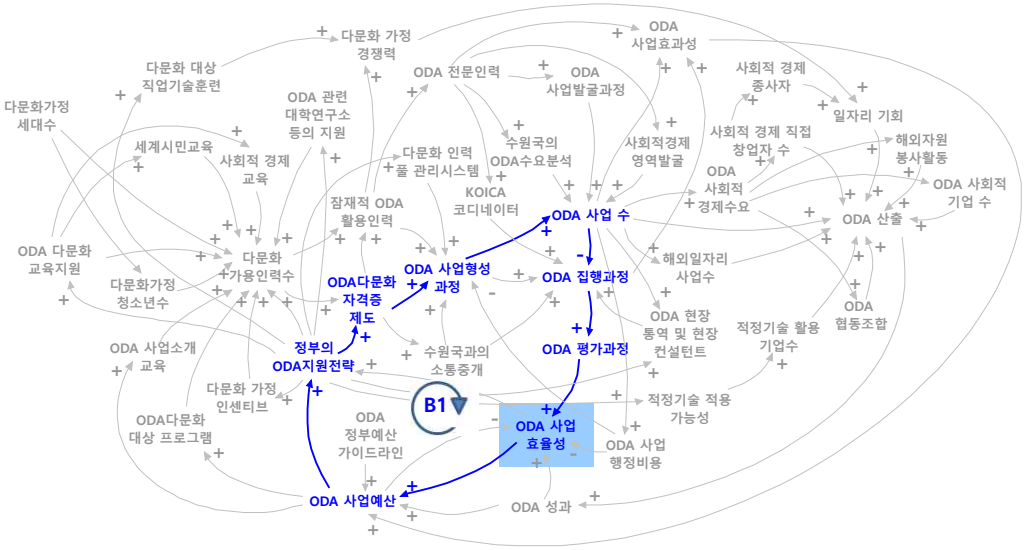
ODA 사업 사회적 경제수요에 대한 강화루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ODA 사업예산 ⇨ 정부의 ODA지원 전략 ⇨ ODA 다문화 자격증 제도 ⇨ ODA 사업형성 과정 ⇨ ODA 사업 수 ⇨ (ODA 사회적 경제수요 ⇨ 사회적 경제 창업자 수 ⇨ 사회적 경제 종사자 수 ⇨ 일자리 기회 ⇨ ODA 산출), (ODA 사회적 경제수요 ⇨ 해외 자원봉사활동 ⇨ ODA 산출), (ODA 사회적 경제수요 ⇨ ODA 사회적 기업 수 ⇨ ODA 산출) ⇨ ODA 성과 ⇨ ODA 사업예산 증가

다음은 균형루프 (Balancing Loop)를 탐색해 보기로 한다.

5) B1: ODA사업수에 따른 ODA 사업 효율성 루프 (Loop)

ODA 사업수에 따른 ODA 사업 효율성 루프는 ODA 사업예산 및 정부지원으로 ODA 다문화 자격증 제도를 비롯하여 관련 ODA 사업형성 과정을 통하여 ODA 사업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 ODA 사업 수가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ODA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성이 증가하게 되어 ODA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마이너스(-)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나타내는 피드백 루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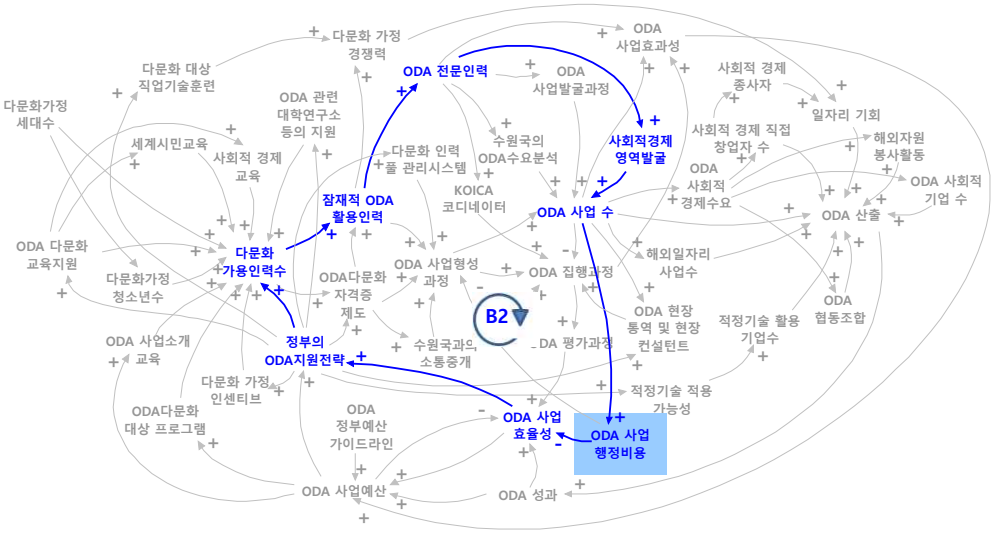
〈그림 7〉 ODA사업수에 따른 ODA 사업 효율성 루프 (Loop)

ODA 사업 효율성에 대한 균형루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ODA 사업예산 ⇨ 정부의 ODA지원 전략 ⇨ ODA 다문화 자격증 제도 ⇨ ODA 사업형성 과정 ⇨ ODA 사업 수 ⇨ ODA 집행과정 ⇨ ODA 사업 효율성 ⇨ ODA 사업예산 증가

6) B2: ODA 사업행정비용 루프 (Loop)

ODA 사업행정 비용 루프는 다문화 가용인력 수 및 ODA 전문인력 투입으로 ODA 사업수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ODA 사업집행을 위한 제반 행정비용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ODA 사업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피드백 루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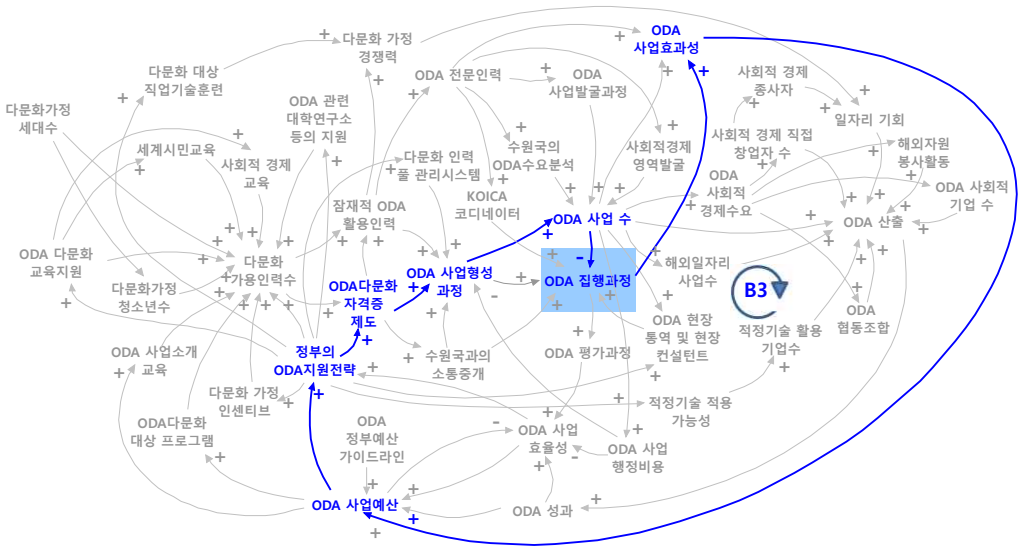
〈그림 8〉 ODA 사업행정비용 루프 (Loop)

ODA 사업 행정비용에 대한 균형루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ODA 지원 전략 ⇨ 다문화 가용 인력 수 ⇨ 잠재적 ODA 활용인력 ⇨ ODA 전문 인력 ⇨ 사회적 경제영역 발굴 ⇨ ODA 사업 수 ⇨ ODA 사업 행정비용 ⇨ ODA 사업 효율성 ⇨ 정부의 ODA 지원 전략 조정

7) B3: ODA 사업수에 따른 ODA 집행과정 효율성 루프 (Loop)

ODA 사업 수에 따른 ODA 집행과정 효율성 루프는 ODA 사업 수가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많아지면, ODA 사업 집행과정에서 효율성 뿐 만 아니라, ODA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가치 및 당위성 등을 나타내는 ODA 사업 효과성에도 악영향을 나타내게 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루프이다.



〈그림 9〉 ODA 사업수에 따른 ODA 집행과정 효율성 루프 (Loop)

ODA 사업 수에 따른 ODA 집행과정 효율성 루프는 ODA 사업 수가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많아지면, ODA 사업 집행과정에서 효율성 뿐 만 아니라, ODA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가치 및 당위성 등을 나타내는 ODA 사업 효과성에도 악영향을 나타내게 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루프이다.

ODA 집행과정에 대한 균형루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ODA 다문화 자격증 제도 ⇨ ODA 사업형성 과정 ⇨ ODA 사업 수 ⇨ ODA 집행과정 ⇨ ODA 사업 효과성 ⇨ ODA 사업 예산 ⇨ 정부의 ODA 지원 전략 ⇨ ODA 다문화 자격증 제도 활성화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인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높이고자 하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다문화 가정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는 연구는 대단히 제한적이었다. 일부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을 활용하여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서 ODA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시키기 위해서는 각 정책의 단계마다 발생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탐색하여야 하고 조절효과, 매개효과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관리할 때 본래 의도한 정책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스템다이내믹스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과제에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을 활용하여 볼 때, 인과지도의 작성, 그리고 강화루프와 균형루프를 탐색만 해도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지, 어떤 자원을 통하여 조절을 할 지에 대한 시사점을 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4개의 강화루프와 3개의 균형루프를 탐색할 수 있었다. 강화루프는 다문화 가용 인력 수 강화루프, 잠재적 ODA 활용인력을 통한 ODA 전문 인력 양성 강화루프, ODA 사업효과성 강화루프, ODA 사회적 경제수요 강화루프이다. 한편, 균형루프는 ODA 사업수에 따른 ODA 사업 효율성 균형루프, ODA 사업행정 비용 균형루프, 그리고 ODA 사업수에 따른 ODA 집행과정 효율성 균형루프 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다문화가정 인력을 ODA 사업에 활용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만 있었을 뿐 정책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구체적 인과관계나 피드 백 루프 구조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분야를 시스템적 사고를 활용하여 다루었다는 점에 우선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에서는 다문화가정 인력이 증가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ODA 예산이 증가되면서 동시에 효과성은 지극히 낮은 상황속에서 두 가지 상황을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내재되어 있는 피드백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정책의 성공적인 결정과 집행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가정 인력과 ODA 사업을 연계시켜서 시스템적 사고에 의하여 논의를 하고 피드백 구조 도출을 시도해 보았다는 점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루프들에 대한 세심한 전략적 고려를 한다면, 향후 다문화 가정의 인적 자원을 통한 우리나라 ODA 사업 효과성 제고에 제한적으로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관련 변수들 및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충분히 다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은 후속연구들이 더욱 진척되어서 보완해 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환. (2017). 정책보고서의 인지지도 분석: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사례.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18(1): 5-21.

김동환·정창권·김승범. (2019). 저출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연결을 통해 드러나는 피드백 루프,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20(4): 25-43.

김선정·김예린·김영환. (2018).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의 개념적 관계에 대한 질

적 연구: 국제교육개발협력 측면을 중심으로.「교육학연구」, 56(2): 133-159.

김세경. (2017).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2): 999-1010.

김승완. (2017). 중증 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 사례연구.「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2): 21-46.

김영기·김찬석·문송이·박진수. (2016). 외국인 유학생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연구.「한국언론학보」, 60(2): 305-337.

김오숙. (2015). 국내 외국인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예측모형검증.「다문화교육연구」, 8(3): 109-131.

김정연. (2019). 외국인유학생의 창의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창의융합역량 분석.「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9): 17-28.

김진관. (2015).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방안.「세계와 도시」, 기획논문.

김창훈. (2017).「시스템다이내믹스」, 서울: 한국스트라모.

김학실. 최영출. (2019a). 공적개발원조 (ODA) 에 있어서 효과성 측정방법론의 적용.「한국비교정부학보」, 23(4): 1-27.

김학실. 최영출. (2019b).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 국가협력전략 (CPS)의 역할과 향후 개선방향.「한국자치행정학보」, 33(3): 271-296.

김현진. (2018).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비교 연구: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한국어교육」, 29(4): 31-63.

김현진. (2017).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수준별 문화적응 요인 및 문화적응 전략 비교 연구.「이중언어학」, 69: 51-79.

김효선·김은수. (2018). 외국인유학생의 한국 적응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중국 및 베트남 유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인문논총」, 47: 51-68.

남부현·김옥남·남기석. (2014). 외국인 유학생 생활경험 속에 투영된 한국인과 한국문화.「사회과학연구」, 25(1): 105-126.

노영숙. 장지현. (2018).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딜레마.「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1): 27-52.

박미석·김경아.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자녀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인력 양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3): 95-113.

박미석·전지원. (2017). 다문화청소년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 참여에 관한 연구.「청소년문화포럼」, 51: 71-97.

박복영·이홍식·구정우. (2013).「중점협력국 선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다문화가족 통계」, 여성가족부.

윤석상. (2015). 공적개발원조와 사회적 자본, 다문화 공생사회 구축과 ODA 상관성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일본연구」, 63: 97-124.
이동희. (2018). FGI 분석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전공학습 향상을 위한 교수법 설계: H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관광연구저널」, 32(1): 215-231.
이민경. (2012).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동기: A대학 아시아 유학생들의 한국유학 선택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한국교육학연구」, 18(2): 177-201.
이상미. (2014). 외국인 유학생의 이문화에 대한 태도와 개인적 특성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4): 368-378.
이정주·이윤경·권정현. (2017). 1970년대 여성 새마을 리더 주도 새망르 사업의 분석과 함의.「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2): 71-101.
이천운·이일용. (2014).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주는 시사점.「비교교육연구」, 24(1): 31-52.
임춘식·이인수·양미자. (2017). 북미 초고령 농촌지역의 발생조건에 관한 연구.「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1): 215-243.
임혜정. (2018).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경제 실천에 관한 연구: B협동조합의 다문화교육을 중심으로.「다문화와 평화」, 12(3): 249-270.
장지현. (2019). 저개발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ODA) 연구경향 분석.「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9(1): 121-146.
장지현. (2017).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시나리오 분석.「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1): 63-86.
장지현·최영출. (2017). 주민참여 영향요인이 도시발전 수준에 미치는 인과관계 분석: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의 적용.「한국지방행정학보」, 14(1): 125-152.
전재은. (2016).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에 대한 대학기관 수준의 결정 요인 분석.「글로벌교육연구」, 8(3): 29-51.
정지아·부향숙. (2018). 한국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식유형.「다문화교육연구」, 제11권 제3호, pp.169-198.
조재한·임소영·김영민·김인철·(2016). 국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해외진출 기업 지원
최분희·이창원. (2017).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 출산장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7권 제1호, pp.187-214.
최영출. (2017).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위상강화 방안.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제18권 제1호, pp. 23-56.
행정안전부.(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보고자료.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018).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UN.
Edmunds, S., and Brown G. (2010). "Effective small group learning: AMEE Guide No. 48", *Medical*

teacher, Vol.32, No.9, pp.715-726.

Frambach, JM, Driessen EW, Chan Li-Chong and Van der Vleuten CPM. (2012). "Rethinking globalization of problem-based learning: how culture challenges self-directed learning", *Medical education*. Vol.46, No.8, pp.738~747.

Gurin, P, Dey EL, Hurtado S., and Gurin G. (2002) ,"D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Theory and impact on educational outcomes", *Harv Educ Rev*. Vol.72, No.3, pp.330~367.

Hommes, J., Rienties B., De Grave W., Bos G., Schuwirth L., and Scherpbier A. (2012). "Visualising the invisible: The impact of informal interaction on student learning", *Advances in Health Sciences Education,* Vol.17, pp.743-57.

Jippes, E., Achterkamp MC., Brand PLP., Kiewiet DJ., Pols J., and Engelen JMLV. (2010). "Disseminating educational innovations in health care practice: Training versus social network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70, No.10, pp.1509-1517.

McLean, M., Van wyk JM., Peters-Futre EM., and Higgins-Opitz SB. (2006). "The small group in problem-based learning: more than a cognitive 'learning' experience for first-year medical students in a diverse population", *Medical teacher,* Vol.28, No.4, pp.e94-e103.

Sterman, J. (2000). *Business Dynamics: Systems Thinking and Modeling for a Complex World*. N.Y: McGraw-Hill.

Sümer,, S., Poyrazli, S., and Grahame, K. (2008).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86, No.4, pp.429~437.

Tatar, S. (2005). "Classroom participation by international students: The case of Turkish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Vol.9, No.4, pp.337~355.

Tompson, H. B., and Tompson, G. H. (1996). "International perspective: Confronting diversity issues in the classroom with strategies to improve satisfaction and reten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Vol.72, No.1, pp.53~57.

Volet, S. E., and Ang, G. (2012). "Culturally mixed groups on international campuses: An opportunity for inter-cultural learning",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Vol.31, No.1, pp.21~37.

접수일(2020년 04월 06일)
수정일(2020년 04월 24일)
게재확정일(2020년 04월 28일)

〈국문초록〉

다문화가정 인적자원을 활용한 ODA 효과성 제고방안: 시스템다이내믹스 적용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다문화 가정이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이보다 적합한 정책을 설계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한국 다문화 가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살리고 잠재적인 능력들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ODA 관련 정책목표 달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ODA와 다문화 가구 간의 인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포함하는 인과 관계지도를 작성하고 이 인과관계 지도 속에 내재되어 활동하고 있는 강화 및 균형 루프를 식별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4 개의 강화 루프와 3 개의 균형루프가 발견되어 정책 입안자들이 ODA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을 수립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주제어: 공적개발원조, 다문화가정, 시스템다이내믹스

장지현(張志賢):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경영학사, 영국뉴캐슬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충북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를 받았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상명대학교(천안) 계당교양교육원 부교수 겸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로는 교육분야에서의 사회적 기업 적용가능성 연구(2012), 자율형 사립과 현장 컨설팅을 위한 기초연구(2010), 영국의 교육/학위제도 조사연구(2009), 학습자의 관점에서 본 대학의 우수강의 핵심요소 분석(2013), 교육ODA사업의 효율성 강화방안(2018), Relationships among social policy factors,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happiness (2015), 등의 연구가 있다(610085@smu.ac.kr).